

실질적 권익 대변하는 학생회를 바란다

본사 설문조사 실시 ... 복지강화 요구 55% '투표하겠다' 78% 응답

2002 학생회 선거 -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①

90년대 후반 이후 학생회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갈수록 학생회의 사업들이 학생들의 무관심에 의해 외면당하는 등 학생회는 대표성미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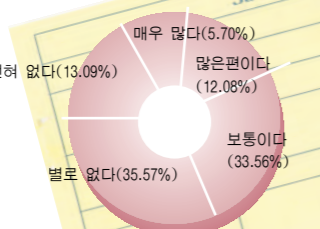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회 선거가 시작됐다. 매년 허락하는 투표율과 냉대받는 후보자들의 유세는 이러한 학생회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선거는 무관심의 골레에서 벗어나 바람 끝에 선 학생회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점이 되는 사안들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분석하고, 나아가 학생회의 위기와 대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

본사 대학부는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 재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학생회'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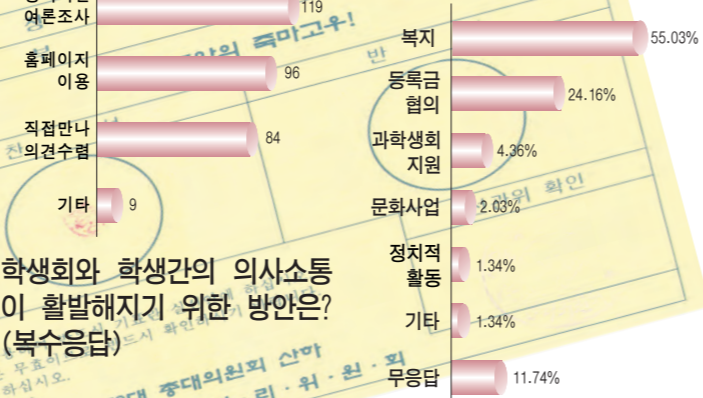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6%가 '관심 없다'고 답했고, 사업에 대한 참여도 역시 52.02%의 응답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전혀 참여해

평소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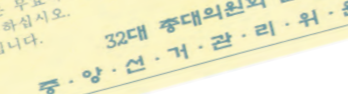


- #### 관심 있는 순서
1. 설문조사 - 우리가 바라는 학생회
 2. 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3. 대중적 학생회 가능인가

총학생회 사업중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것은?



학생회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기 위한 방안은? (복수응답)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다시 한 번 실감케했다.

반면 학생회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복수응답이 허용된 질문에 응답자의 80%이상은 대동제나 백상예술제전, 한가위 귀향사업 등 전통적인 대중행사를 알고 있었고, 도서관 좌석관리나 등록금 책정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노동운동 등 정치적인 활동이 총학생회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60.07%의 응답자가 '일정수준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대학생에게 정치적 활동이 중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줬다.

하지만 차기 총학생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응답자의 55.03%가 교육환경개선을 포함한 복지부문을 꼽았고, 등록금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51.56%의 응답자가 과학성회를 통한 단계적 의견수렴이라고 답해 기본적인 방법의 활성화를 기대했고, 정기적인 여론조사 응답의 41.18%를 차지해 체계적인 방법 모색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다수인 78.19%가 '그렇다'고 답해 몇 년간 계속된 저조한 투표율이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부 dmz@dongguk.edu

전공 '만족' 교육여건 '불만'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재학생 10명중 6명이 현재 전공 또는 학부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에서 본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학교·학과·교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공 또는 학부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학생이 61.8%, '불만족스럽다'는 학생이 10.9%였으며, '전과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7%에 달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또는 학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 교육여건부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여건 항목 중 장학금제도에 대해 학생들은 액수와 수혜자 범위에 대해 액수는 54.8%가 수혜자 범위는 57.8%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설문에 응답한 한 학생은 "현 장학금 제도는 1등이 아니면 모두 우수장학금"이라며 "장학금 단계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과과정에 대한 항목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응답을 살펴보면 '교양과목의 강자수가 적다'가 48.7%, '강좌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가 53.6%를 차지해

교양과목의 수나 종류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학교 이미지에 대한 항목에서 혁신적 이미지와 학생 중심의 학교운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혁신적 이미지에 대해 53.9%가, 학생중심 학교운영 이미지에 대해 53.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과 앞으로 행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말까지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에 관한 학부모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본교의 교육수준에 대한 만족도 항목의 경우 '만족한다'가 47.8%, '그저 그렇다'가 35.6%, '불만족스럽다'가 13.5%를 차지했다.

학부모들이 교육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주된 요인은 학생 본인의 만족 때문(66.7%)이었으며, 불만족하는 주된 요인은 교수의 적극적인 학업지도 부족 때문(53.5%)이었다. 이를 통해 교수의 학업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지면안내

미국 보복공격과 반전시위 4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왔던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 이에 따른 보복공격

회귀식물 이야기 5면

임권택 감독과 민족문화 6면

브리쉬

거짓말 게이트

장계환 (불교대학 불교학과)

오계(五戒)는 불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가르침이다. 특히 오늘의 세대와 같이 인성이 무너지고 자연훼손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시대라고 보면, 누구에게나 '오계 지키기'에 참여하고자 권해되고 싶다. 따라서 옛날과는 달리 단순히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해나가겠다는, 이를테면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비의 정신으로 전환시키고, 불투도계(不偷盜戒)는 '보다 많이 빼돌렸다'는 이웃사람의 마음, 불사음계(不邪淫戒)는 '건전한 교제만을 하겠다'는 정행의 마음, 불망어계(不妄語戒)는 '바른 말만을 하겠다'는 정의의 마음, 불음주계(不飲酒戒)는 '참되게 살겠다'고 자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 사회는 좀더 낙낙해질 것이다.

이렇게 오계의 정신이 우리를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것은 마치 산천초목의 무성한 풀잎도 한 개비의 성상으로 다 태워버리듯이 무명(無明)으로 겹겹이 쌓여온 업장도 한 순간에 소멸될 것이다.

지난해 교계의 신문사에서 오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았더니, 오계 가운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妄語)계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남들에게만은 제발 지켜달라고 하고 싶은 계(戒) 역시 망어계였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과 같이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한동안 '모모(某某) 게이트'라는 외래어가 신문지면들을 통하여 유행하더니 이제는 '거짓말 게이트'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본적 없다"에서 "만났다"로, "돈준 적 없다"에서 "했다"로 말 바꾸기를 거듭하다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 신문을 볼 때마다 어지럽증이 생길 것만 같다.

강정구 교수 보석 석방 ... 오늘(29일) 공판

사회학과 학생, 환영식·학술 심포지움 등 열어



지난 17일 열린 환영식에서 강정구 교수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만경대 방명록' 파문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정구(사회학)교수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 더 이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12일 구치소 앞에는 재야인사와 사회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나와 강교수를 맞이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통일연대 인사들과 본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복원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또한 대학원 사회학과는 지난 27일 '강정구 교수의 학문과 사

상'이라는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서울대 김진균(사회학) 교수 등이 참석해 강교수의 통일관과 대미관 등에 대해 발표·토론했다.

한편, 강교수의 1심 재판은 오늘(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각전 제 5차 봉불식

대각전 만불보안 불사 제 5차 봉불식이 다음달 2일 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각전에서 봉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260여명의 발전기금 기부자의 불상이 봉안되며

6명의 기부자에게 감사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봉불식 이후 참석자들은 일산병원 건실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선거 4년만에 경선

주진완·양희창조 이재광·이동우조 등록

2002학년도 중앙기구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20일 마감됐다. 등록 결과 서울캠 제34대 총학생회장 정·부학생회장 후보로 주진완(국고4)·양희창(반도체3) 조와 이재광(철4)·이동우(전기4)가 출마해 지난 97년 이후 4년 만에 경선이 치러진다.

이외에도 총대의원회는 윤재욱(약고4), 총여학생회는 정=허고윤(중문2)·부=박윤지은(연영3), 졸업준비위원회는 박종희(정보통신3) 후보가 모두 단독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다음달 1일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1차 합동유세를 다음달 1일 중도 앞

에서, 2차를 다음달 8일 동국관 앞에서 하며, 공청회는 다음달 6일에 개최된다.

또한 투표는 총대와 졸업위, 총학과 총여로 나눠 진행된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구호는 다음과 같다. △제33대 총학생회 주진완·양희창조=일만이전과 함께 동고동락, 이재광·이동우조=경쟁과 순응으로부터의 탈주! 저항의 사자후로 포효하라! 그대 청년 동학이여! △제33대 총대의원회 윤재욱=240 대의원과 동고동락 △제16대 총여학생회 허고윤·박윤지은=여자들의 사자후, 위풍당당 16대 총여학생회 △제14대 졸업준비위원회 박종희=역량있는 사회진출, 당당한 동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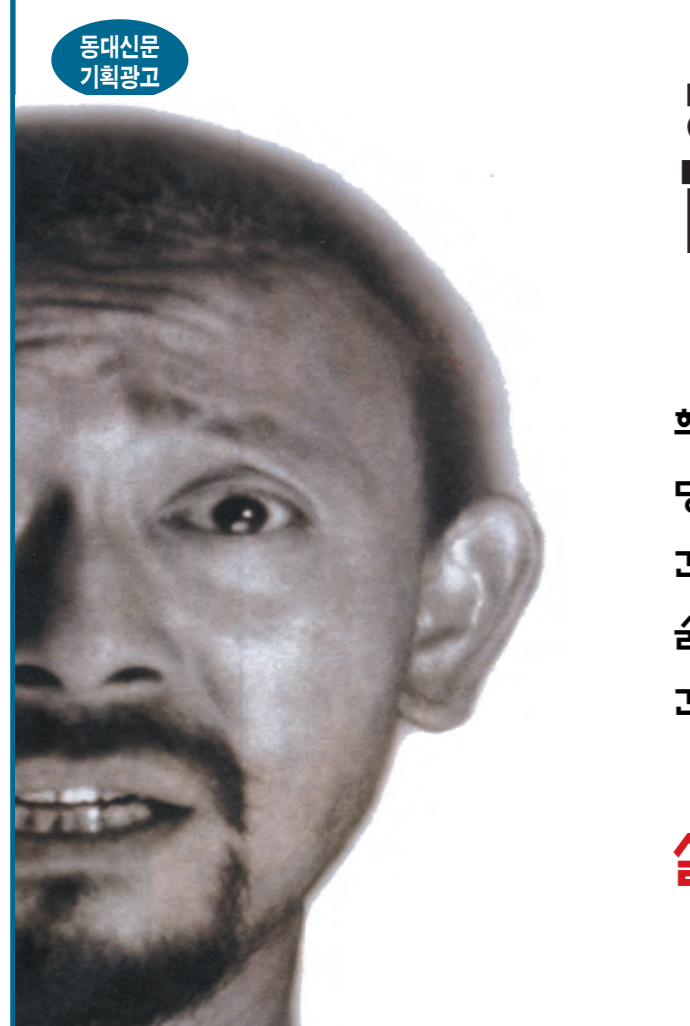
중국연변대학 학술교류협정

본교가 다음달 2일 본관 회의실에서 중국연변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조인식을 갖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대학은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주최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 △기타 교류사항에 대한 상호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사사령

- ◇ 임수승기자 ▲구문경 (인문과학대1) ▲박정환 (인문과학대1) - 이상 10월 22일자
- ◇ 의원면직 ▲정윤미 (인문대 국문2) ▲김남정 (인문대 중문2) - 이상 10월 15일자



흡연자가 온다

회부연 연기를 내뿜으며 그들이 다가올 때, 당신의 호흡기를 조심하라. 건물내 흡연자를 피하려는 비흡연자들의 숨막히는 탈출기! 간접흡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실내에서의 금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동대신문사

발전기금 ARS 7000-119

제2회 동국벤처주관 (11. 12 ~ 11. 16)

벤처기업의 올바른 홍보와 벤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동국인에게도 벤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제2회 동국벤처주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 창업 경연 대회

- 1) 참가자격 : 본교 재학하는 대학원(석/박사) 및 학부생 대상
- 2) 모집 및 심사
모집 기간 :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심사 : 1차 서류심사후, 우수작에 한하여 11월 16일 발표회를 가짐(오후2시 동국관 L407)
- 3) 시상내용
대상(1팀) : 100만원 - 창업지원금, 창업지원단 Soho 입주 기회 부여
우수상(1팀) : 70만원 - 창업지원금
佳作(2팀) : 50만원 - 창업지원금
- 4) 참가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작성
나.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다. 2차 설명회 발표에 대비한 발표자료 준비
- 5) 제출서류 : 벤처 창업 사업계획서(소정양식)2부와 3.5" 디스켓
- 6) 제출처 :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동국관 M동 2층 201호)

벤처 창업 특강

- ▶ 11월13일(화) 14시 문화관 세미나 1실
창업과 창업마인드 : 이경화(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 ▶ 11월14일(수) 16시 문화관 세미나 1실
창업환경분석 : 이영직(브랜디다 컨설팅 대표)
- ▶ 11월15일(목) 14시 문화관 세미나 1실
21세기 여성창업의 비전 : 김은수(새터 커뮤니케이션 대표)

단과대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7개 단과대 단독입후보 ... 다음달 13일부터 3일간 투표

2002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정·부 입후보자 등록 결과 이과대, 법과대, 공과대, 정산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 후보가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나 올해도 대부분 단과대 선거에 단독후보만이 입후보했다. 단과대 선거는 중앙기구와 함께 다음달 13일부터 3일간 치러지며, 후보자와 구호·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후보=정미희(인도철3)·김영철(불교3) △구호=함께 달려오 학생회! △공약=동악내에서 고립되지 않은 학생회.

문과대 △후보=최경희(국문2) △구호=승리의

시대를 향해 함께 도약하는 젊은 도전! △공약=문과대 학제 개편에 맞춘 광역화 철폐 투쟁으로 문과대 정체성 확립.

사과대 △후보=서영건(사회2) △구호=하나되는 힘찬 다짐! △공약=일방적인 학제개편으로 인해 늘어난 과 학생회, 반체제 강화.

경영대 △후보=유영빈(경영4)·김복중(경영3) △구호=1300 경영인과 함께 하는 동고동락 △공약=법대이전 후 경영대학의 단독 건물 마련.

생자대 △후보=신용화(생명자원산업유통2)·차현석(산림자원2) △구호=작은 실천! 큰 감동! 500의 든든한 벗! △

공약=책걸상 교체와 낙후된 사물함 교체 등 생자대 교육시설 향상.

사범대 △후보=오선익(국교3)·신승원(수교3) △구호=예비교사 근본주의! 다부진 결심! △공약=참교육 주간 설정과 예비교사교양대학 유치.

예술대 △후보=이승민(서양화3)·김상선(연영2) △구호=청년의 양심이 살아 숨쉬는 500 예술인의 거름나기 △공약=예술대만의 아간자율실습신청절차안 마련.

아간강좌 △후보 갑=이상현(경영2)·장혜정(경영4) △구호=함께 있어 든든한 벗! △공약=전공수업과 교필수업 13교시 이후에 배치된 직장인들의

지각 공포증 제거, '근로민중의 배움터' 아간강좌와 정제성 확립.

△후보 을=김영규(경제2)·고지아(국제통상2) △구호=혼돈의 시대 새 질서를 창출하는 변혁의 몸짓 △공약=소모임 지원국 신설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보장, 직장인 복지위원회 신설. 한편, 동아리연합회(위원장=권영은·국문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오늘(29일) 후보자 추천으로 시작되는 이번 일정은 오는 31일부터 3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후보자 공고 △21일=유세 △22일=투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별천지 ... 지난 24일 팔정도에서 KBS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의 한 코너인 '99초광고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동악은 본교 출신 연예인과 여러 스타들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생활협동조합 대의원총회 이익잉여금 및 예산안 처리 논의

제4차 생활협동조합 대의원총회가 오는 31일 오후 4시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3차 이사회에서 상정된 △2001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미처 분 이익잉여금 및 작년도 이익잉여금 처리를 안건으로 다룬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99년도까지 이월된 잉여금 총액이며, 작년도 이익잉여금에는 미시령부상자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초로 예정됐던 대의원총회일정이 이번으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안 및 잉여금 처리는 사후 승인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계절학기 활성화 필요

학생 참여 부족 ... 내년부터 보완책 실시

학기 중 강의시간이 중복되거나 신청학점을 초과해 듣지 못한 수업이 있다면 방학 중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계절학기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본교는 학기 중 개설했던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계절학기 수강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양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학생들의 지원이 강좌개설 기준인 원인 7명을 넘지 않아 개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지한 교양강좌만 신청 할 뿐 전공과목도 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교수가 수업을 담당할 경우 다음 학기 책임자 등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경식(경영2)군은 "계절학기 강의는 대부분 강사가 맡아 신뢰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업기간이 짧아 일주일에 6번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서울대의 경우 북수전공자의 원활한 학점 취득과 3학기제 마련을 위해 지난 학기부터 계

절학기의 수강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늘려 학생들이 내실있게 수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교수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계절학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업기간을 3주에서 4주로 연장해 학생들이 여유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과별로 수강을 희망하는 전공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교양 수업과 함께 공지할 예정이다.

본교는 수강기간을 늘리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수의 강의 참여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계절학기 신청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제일은행 각 지점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회전무대

개인 소장품

O...동악에 도선생이 등장했다? 요즘 주자에 안전을 기하기 위한 언덕길 주차 버팀목이 하나 돌씩 없어지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버팀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팀목을 사용한 후 트럭크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이런 행동으로 인해 다음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버팀목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자신의 행위가 왔다고 느끼는 순간, 안전은 간다."

거짓말

O...정보문화관 컴퓨터실은 담당자의 롤(?)대로 움직인다는데. 개방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일찍 문을 열어버리기 일쑤라고.

이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컴퓨터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일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10시 30분이라고? 웃기네~ 웃기는 소리하네~"

특별한 시험

O...어느 시험시간에 수업내용관련 시험이 아닌 인내심 기르기(?) 시험을 보았다는데.

이유인즉, 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시간에 교수와 조교가 1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학생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사전에 이렇다할 사전 설명도 없이 학생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만든 것은 학생들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으니.

이에 기다리던 한 학생 한마디, "Do you have any ex. experience (like this situation)?"

기도

O...시험기간 동안 이색 아르바이트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 있다는데.

알아보니 컴퓨터, 영어 등 특정 영역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대리시험을 봐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쉽게 점수를 얻으려는 행동과 이를 이용하는 행동은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출판부 신간도서 출간 '불교문화사' 외 2권

출판부(부장=문기곤)가 유문사천, 전자상거래 보안응용, 불교문화사 등 신간도서 3권을 출간했다.

'유문사천'은 장자화의 한토 하법과 정신치료에 관한 한의학 저서를 본교 한의대 구병수·이동원 교수가 옮긴 책이며, '전자상거래 보안응용'이라는 부제의 '전자화폐'는 전자지급결제 시스템 중 하나인 전자화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본교 정보산업학과 송유진·주재훈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또한 '불교문화사'는 인도와 중국, 한국의 불교 문화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경찰행정학과 장학금 수여 총 3천 1백 40만원 전달

경찰행정학과 동문회와 경비업체 등으로 구성된 장학 후원회가 지난 11일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1학기 평점 3.0이상의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중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58명에게 총 3천 1백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이항우(경찰행정학) 교수는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국가형사사법기관에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늦 가을 마지막 축제 예술대 '도시락제'

예술대 학생회(회장=차종철·영화TV3)는 내일(30일)부터 이틀간 가을축제 '도시락(도시락樂)제'를 개최한다.

첫날은 오전 11시부터 '전통 놀이관'과 '불량식품 판매' 등의 상설마당으로 시작되며, 오후 4시부터는 동국관과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사이 주차장에서 가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둘째날은 오전 11시부터 두리터와 학술문화관 곳곳에서 상설마당이 계속된다.

물리학과 학술제 오는 31일부터 3일간

물리학과 학생회(회장=김홍진·물리4)가 오는 31일부터 3일간 학술제를 연다.

첫날은 SRC 강태원(물리학) 연구소장이 '인공지능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강연하며, 둘째날에는 오후 1시부터 '퀴즈 정글' 'FLYING EGG'가 불상 앞에서 진행된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오후 1시부터 '도전골든벨' '볼로켓 발사 실험'이 불상 앞에서, 6시에는 '물리인의 밤' 행사가 상록원 카페테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본사 주최 제38회 동대 학술상, 제16회 동대 문학상 작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 제출기간 : 2001년 11월 12일 ~ 11월 30일까지
- ▶ 심사위원 : 응모작품에 따라 추후 별도 위촉
- ▶ 입상발표 : 2002년 1월 1일차 동대신문 지상

기타문의·제보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시상 : 인문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평론부
- 응모요령 : 시부문 - 3편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시상 : 시부 - 장원 30만원, 가작 15만원 소설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평론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동대신문사

취미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단기강좌

1. 기간 및 강좌명 : 2001년 10월 29일 ~ 11월 30일 (5주, 주 1회 2시간씩 총 5회)

강좌명	강사	내용	요일/시간	비고
받은 제2의 실장 - 발판리	김수자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발판리 커뮤니티개발자	1. 발판리 역사, 종류 2. 기본 반사구의 이론 및 실기(노폐물 특수 제거) 3. 소화기 이론 및 실기(비만·소화불량·담뇨) 4. 생선선 및 임파 계통(생리불순·감기예방) 5. 낯선한 종이 만들기	금요일 2:00 ~ 4:00	필기도구 발판리 재료비 별도 (20,000원)
댄스&댄스 (리턴댄스)	손재현 (체육교육과교수)	1. 기본스텝연습 2. 실기 3. 반복	금요일 3:00 ~ 4:00	관한복장 면암발 선착순 40명
선물포장 및 생활꽃장식	장경이 (한국꽃예술작가협회 경기꽃꽃이중앙회 회장)	1. 바탕개비(스파라크자)포장, 사각상자 포장 2. 착잔 꽃 디자인 3. 원형통 포장, 포장용 리본 제작 4. 미니 국화 꽃바구니 5. 합송이 장미·해바라기 꽃포장, 리본제작	수요일 2:00 ~ 4:00	가위, 연필, 폼 스티커, 포장관련재료비 별도 (25,000원)

2. 접수 및 장소 : 2001년 10월 30일까지, 수강료 5,000원 계산관 1층(사범대옆). 선착순 마감, 정원 이하는 폐강

3. 기타 문의는 여학생실(☎ 3056, 계산관 1층)로 하시면 됩니다.

까장터의 '장터몰이'를 찾습니다

자신의 끼를 발휘하지 못해 안타까우신 분들, "나 아니면 누가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참가하세요.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출연료를 드립니다.

- ▶ 공연소재 : 노래, 춤, 개그 등 장르에 상관없음
- ▶ 공연시간 : 매주 수요일 12:00 ~ 13:00

여학생실

동국인 안에 나를 찾아서

- 재외국민·외국인 학생지원프로그램 -

- ▶ 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재외국민·외국인 학생
- ▶ 시간 : 2001. 11. 1(목) 오후 5시
- ▶ 장소 : 교육매체센터 (학림관 3층)
- ▶ 내용 : 일반적인 대인관계 유지하기

MBTI 검사 실시 및 성격 유형 탐색 성격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전략

편입생을 위한 시간

- ▶ 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편입생
- ▶ 시간 : 2001. 11. 6(화) 오후 3~5시
- ▶ 장소 : 학림관 강의실 J405호
- ▶ 내용 :
 - 꼭 알아야 할 학사제도 안내
 - 시험답안 작성방법 지도
 - 좋은 레포트 작성법 지도
 -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
 -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문의 :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 전화 2260-3332, 3331, 3330

학생상담센터

취업지원팀 E-mailing Service 실시

■ 구직 등록 서비스 취업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대학생활' 내 '취업' 또는 '부업')에서 희망분야 및 구직사항을 미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E-mailing Service : 취업 구직등록시 희망할 경우, 본인의 희망개요에 해당하는 당일 취업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인 등록 서비스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서 구인정보를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정확하고 빠른 취업/부업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 특강

본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중등교원 임용고사 합격율을 제고하고자 교육학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01년 10월 31일(수) ~ 11월 16일(금)
- 강의시간 : 매일 17:30 ~ 19:10 (100분 강의)
- 장소 : 학림관 소강당, J410, J501
- 대상 : 본교 교원임용고사 준비 사범대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수강료 : 무료 (교재제공)
- 시간표

일 자	과 목 명	강 사	장 소
10/31(수)	교원임용고사 최신경향 및 대책	이찬휘	학림관소강당
11/1(목)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심연미	학림관601
11/2(금)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심연미	학림관410
11/5(월)	교육행정 및 교사론	이영희	학림관410
11/6(화)	교육행정 및 교사론	이영희	학림관601
11/7(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남경희	학림관601
11/8(목)	교육과정 및 평가	고진호	학림관601
11/9(금)	교육과정 및 평가	고진호	학림관410
11/12(월)	교육사 및 교육철학사	박범석	학림관410
11/13(화)	교육사 및 교육철학사	박범석	학림관601
11/14(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남경희	학림관601
11/15(목)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학림관601
11/16(금)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학림관410

사범대학

‘교육대란’ 야기한 교육정책의 문제점 논단

시장논리보다 교육 본연의 논리 우선돼야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의 교육대생들이 입학고사 거부결의를 하고 거리로 나섰다. 교수들 역시 졸속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0월 27일 ‘연가투쟁’에 돌입하였다. 8만명 이상의 교사가 교원성과급 반납을 결의하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일찍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온 터이다.

교육부 독단이 자초한 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화를 자초하고 있다.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부쳤을 뿐,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항상 자신들은 옳은데, 교사가 문제라는 식이었다.

이런 태도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주역’인 교사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오죽했으면 원로 교육학자가 나서 “이제 교육개혁의 대상은 교육계가 아니라 교육부 자신”이라고 질타할 정

도겠는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일지 모른다. 정책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정책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을 그대로 계승해왔다.

이른바 ‘교육의 시장화’ 전략이 그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공교육체제를 재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윤추구형 학교까지도 도입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사려깊은 진단에서 나온 처방이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개혁 모델을 그대로 ‘수입’해온 것일 따름이다. 공교육재정이 대폭 감축되고,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미 폐기된 모델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권 부정하는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잠시 생각해보자. 정부는 학교선택권, 자율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내세워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이것 역시 민영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수입된 것이다. 공교육재정을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며 ‘학교경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제도일 따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권을 ‘소비자주권’으로 재해석하는 한, 교육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윤동기가 지배하는 학교시장에서 부유한 소비자와 가난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갈릴 수 있겠는가.

균형감각 갖춘 정책마련 시급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하등 문제시될 이유는 없다. 교육받은 인력이 노동시장의 필요에 부합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공교육은 그런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는 공교육이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런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재정을 감축할 수만 있다면, 한 걸음 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정책학 교수

나아가 ‘교육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런 마당에 교육 본연의 가치에 따라 교육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안된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허망한 개혁 모델에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교육의 시장화’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 자녀 모두에게 가급적 공정한 게임의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다. 돈으로 교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버려야 한다.

기업관리 방식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교직사회를 그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치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말속에 교육적 필요가 담겨있으며, 그것이 교육 본연의 가치에 입각한 교육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설

패기 넘치는 학생회 선거 되길

중앙기구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 임후보자 등록이 지난주 마감됐다. 이른바 ‘학생회 선거철’이 돌아온 것이다. 더욱이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운동 진영이 서로 다른 두 팀이 출마하여, 후보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하고 대학생의 패기가 넘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이후 한번도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학생회 선거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학생들의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 속에서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표자 선출이러기 보다는 말 그대로 ‘자기들만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되어 선거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학생회의 주인은 바로 학생들이다. 따라서 한해 학생회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학생회 선거에 학생 모두가 적극 동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후보자 또한 인기성 공약만을 남발하거나 등교길 교문인사와 같은 형식적인 유세보다는 우리 대학의 당면문제를 학생들과 깊이 공유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등 일상적인 과제부터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정치적인 요구들까지 받아 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안된다.

이번 선거가 해마다 침체되어 가던 학생회 활동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주에 치러진 재·보선처럼 무책임한 폭로전과 매포행위와 같은 타락한 선거가 되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선거답게 깔끔하고 재치와 열정이 넘쳐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들뜬 기분으로 2002년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신나는 또 하나의 축제관이 대학에서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운동회로 전략한 백상체전

지난 18일 경주캠퍼스 백상체전이 황성공원 체육관에서 열렸다. 예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행사 내용에 그리 높지 않은 학생들의 참여정도. 한마디로 학생회 사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행사였다. 지난해와 같이 하루동안만 체전을 진행해 수업의 방해로 최소화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언제부터인가 대동의 의미가 퇴색되고 학생들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기조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

백상체전의 본래 취지는 대동으로, 말 그대로 학생들을 하나로 이끌어내고, 단순 체전이 아닌 학문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체전의 경우 본래취지는 달리 체육대회로만 끝났고, 학생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현 대학이 과제제가 아닌 광역화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고민이 없었다는 점에서 행사 주최측의 준비 미흡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중간고사기간과 겹쳐 시간적 한계로 인해 무리한 행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는커녕, 대중적 참여도를 더욱 떨어지게 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내 행사를 굳이 외부에서 진행한 것과 점점 과제제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단대별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점차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1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 광역화 모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여러 방법들의 고민이 선행했어야 했다.

본교 백상체전은 어느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아니다. 단순히 운동경기와 즐길 수 있는 행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전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학내 구성원 모두가 사회와 학교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대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내 여교수 입지와 개선방안

구조적 장벽 넘어 ‘여성자리’ 보장

“여성이 대학사회에서 학자와 교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알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선편 학문의 길을 권유하기조차 어렵다”

얼마전 서울대 여교수회가 건의문을 내고 정식으로 여성교수 임용할당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 5년 안에 서울대 여성교수 비율이 10%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대학 전체 여교수 비율이 14.1%에 불과하고 서울대는 고작 6.9%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자 우대혜택을 받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여학생 비율은 해마다 늘어 전체 학생의 30%를 넘어섰는데도, 여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줄곧 6%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도 여교수 채용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것이다.

여교수 채용비율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대 여교수회 정육자 회장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개념을 실현해야 할 대학사회조차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임용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지는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여성이 대학 강단에서 일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와 비교해 본교 사정은 양호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교원 346명 가운데 여교수 28명인 8.09%의 비율은 사립대학 여교수 평균비율 16%의 절반에 불과하다.

낮은 여교수 비율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자 여성부는 국·공립대에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대학의 여학생은 7.7%, 석사학위자 10.2%, 국내 박사학위자 11.3%, 국외 박사학위자 8.7% 등으로 고학력 여성비율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여교수의 비율은 국공립대의 경우 8.0%에서 8.8%로 0.8%, 사립대는 13.6%에서 16.0%로 2.4% 증가했을 뿐이다.

이에 반해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중 여성 비율은 26.4%에서 37.5%로 11.1% 증가해 늘어난 여성 박사학위소지자들이 대부분 시간강사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민무숙 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서 여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유능한 여성의 진입 의욕



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원인이 돼 성별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사학위소지자 가운데 여자는 30% 이상을 추천하는 여성공천 할당제도까지 도입했다. 이미 우리사회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목표제의 도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공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었지만 현재 한국 대학의 현실은 ‘여성의 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배려로 비율을 정해 정책적으로 시행하지는 여론은 최신은 아니지만 비틀린 현실을 단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1996년 정부는 행정고시 및 위무고시, 7

급 행정, 공안, 위무 행정직 공채시험에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를, 정당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에 여성후보 30% 이상을 추천하는 여성공천 할당제도까지 도입했다. 이미 우리사회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목표제의 도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공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었지만 현재 한국 대학의 현실은 ‘여성의 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장	백승선	이메일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구독문의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김은선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제국의 무한지배, 계속될 수 없다

자본주의와 팍스아메리카나 체제를 상징하는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정면공격했다는 점에서 9.11 테러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어 드러난 미국의 군사적전과 전략 또한 세계사에 커다란 상흔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왔던 미국. 세계 패권을 영구해보자는 속셈도 숨기지 않는 미국의 독주는 오만하게 비쳐기도 했다. MD추진으로 더욱 두드러진 외교안보정책의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자유무역 등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세계화정책을 강행한 이른바 미국 근본주의는 전세계 테러리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부시 정부의 보복공격 개시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반전시위도 확산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판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광박해진 시민단체들의 전쟁반대 외침을 들어보고, 이와 대조적인 극우·보수 세력의 '전쟁부추기기'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보복공격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망해 본다.



전쟁양상 장기전 돌입 가능성 합리적 '대화' 통해 해결해야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토가 '침공' 당한 9월 11일 테러 참사가 발생한지 50여 일이 지났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격, 탄저병 테러 보도가 날마다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숨가쁘게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은 성조기의 물결로 뒤덮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에 보복전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9.11 테러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기반한 일방적 외교전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동문제를 다룰 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다른 중동 국가들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MD 강행, 교토의정서 탈퇴 등 국제무대에서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여 테러를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과연 많은 사람들의 지적처럼 미국이 앞으로 일방적인 패권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태도로 국제무대에 입할 것인가. 테러 사건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행보를 볼 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각 국에 '출서기'를 강요하며 패권 국가로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테러리스트 편에 서든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든지 결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중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이 대테러 국제연대를 구축하려 하면서도 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으

며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기존의 패권 전략을 버리지 않은 가운데 확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이 미국 내 어느 계층 보다 전쟁을 원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이라는 사실이 미국이 쉽게 전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전쟁이 한두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뿌리뽑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조직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감싸고 있는 나라까지 응징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 수단 등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

한 이런 목표는 성취가 불가능하다.

민주노조운동연구원 박찬식 소장 또한 "이번 전쟁이 30년 동안 계속된 장기불황 끝에 온 것인 만큼 미국이 이번 사건을 경제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전쟁을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

범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설부터 예상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지난 세기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었던 인류가 새로운 세기의 첫 전쟁에서 그에 못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가볍게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확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반전운동가들의 움직임도 더욱 부산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서구 기독교 사회가 이슬람 세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4일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의사소통적 이성'의 논리를 적용해 현대 사회는 각 종교의 세계관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대화에 없는 '침묵 상태인 양 세계의 충돌'이 테러리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뿌리깊은 증오를 보복으로 해결하려는 강경론 앞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합리적인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 아니면 동지'라는 식의 흑백논리가 판을 치는 현 국제질서에서 '대화'는 확전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때로는 '평화의 수호자'로, 또 때로는 '국제질서의 무법자'로까지 불리우는 미국, 극단적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찾고 하버마스의 말처럼 흑백논리 대신 '다름'을 인정해 대화에 나설 때 피의 보복은 끝날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대화없는 양 세계의 충돌이 테러리즘으로 표출

전문가들은 전선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국제질서가 또 한차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미국과 범이슬람 진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3차 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세계대전의



미테러를 바라보는 극우 보수 세력

'안보'를 내세운 '전쟁부추기기'

미국의 보복공격이 진행되자 전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복전쟁과 전쟁지원 반대를 외치는 시위는 연일 끊이지 않지만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MBC 100분 토론'을 통해 "대테러 전쟁은 단순한 보복, 응징의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계해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는 이에 대해 "테러는 인류에 대한 공격으로

따르면 타자정은 탄자균 포자에 직접 접촉하거나 흡입하지 않은 이상 전파되지 않으며 사람 사이의 전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선 일보는 지난 10일자 만물상칼럼에서 "탄자균은 공기를 통해 쉽게 퍼뜨릴 수 있고, 단 10g분량으로 10일 안에 500만 명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등 과장된 보도로 탄저병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생화학테러를 북한과 결부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해 경계심을 갖도록 유발하고 있다. 지난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북

'테러 뿌리뽑기 위한 반테러 전쟁을 적극 지지한다'

한은 8개의 생화학 공장을 갖추고 유독 화학물질 5000t, 탄자균을 비롯한 10여종의 생물학무기 1000이상을 비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북한으로부터 탄자균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도는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면밀한 생화학 테러 예방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말하며 전쟁을 지지하고, 일부 사실을 부풀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안보인지는 의문스럽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범민련 민경우 사무처장을 만나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 급선무'

- 테러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 테러참사 직후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특이 될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 1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연기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조짐이 나타났고 남북 장관회담 개최도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북미관계 개선도 힘들어진 상태라 당분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오랜 기간동안 지연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 현재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은 테러사건을 계기로 반테러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에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미국은 군사 보복행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신경을 쓸 여유가 별로 없는 처지다.

-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는 전망도 있는데.

= 미국의 개선 당시 목표는 테러의 주

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고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누려온 세계 최강국의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게 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에 도움이 된다.

물론 그 이전에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미국이 북한에 강경조치를 취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앞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말 그대로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약로 귀 막은 학제개편

"어? 낮에 웬 목탁소리지?" 지난 24일 경주캠퍼스 불교아동학과 190여명의 여학생들이 불상 앞에 모였다. 구두를 벗어 던진 채 맨발로 108배를 올리고 있는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불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교아동학과를 살려 주십시오." "충장남께 직접 이야기 하고 싶어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온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예타는 마음은 충장명담을 이뤄냈지만 이미 결정된 사건을 번복시킬 수는 없었다.

학교측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내년부터 불교아동학과를 불교유아교육학과로 승인 받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교육부가 학과 명칭은 종교성이 배제돼야 한다고 밝혀 학교측은 '불교'자를 뺀 유아교육과로 전환했다.

일부에서 '불교'자가 빠진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층에 빠졌다. 논의의 거듭한 끝에 2002학년도부터 불교아동

학과를 30명줄인 20명 정원으로, 신설한 유아교육과를 30명으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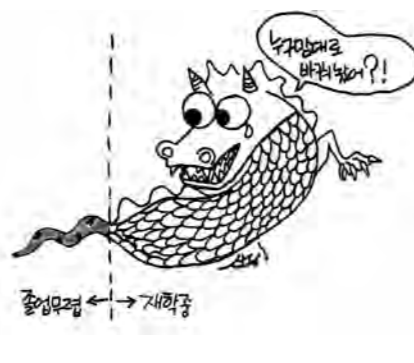
결국 현 불교아동학과를 두 과로 나눈 격이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95.6%의 반대여론을 몰고 상경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해당학과 학생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한 것은 서울캠 영어영문학과(야)를 영어 통·번역과(야)로 정보관리학과(야)가 e-비즈니스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입학경쟁률과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치는 학과 명칭이나 정원 변경은 해당학과 학생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학제개편은 분명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소속 학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평화'를 외치는 세계의 시민들

장기전에 대비한 지속적인 운동 전개해야

"상상해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사는 것을."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존 레논은 노래 Imagine을 통해 반전을 외쳤다.

미국 테러사건에 이어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보복공격이 행해지면서 세계는 또다시 '반전시위' 열풍이 불고 있다

과거 베트남 전쟁, 걸프전쟁, 발칸 전쟁 때 반전시위가 소수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조직화되지 못했던 것과 달리 '21C 첫 전쟁'의 반전시위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시민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CNN등 주요 언론이 '보복공격에 대한 국민 지지가 90%이상'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반전시위가 활발하다. 지난달 20일 열린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전국 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노동자, 학생 등이 끊임없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도 15만 명이 반전 거리 행진에 참여했으며 베를린과 런던의 반전시위 때도 5만여 명이 도로를 점거했다.

세계 반전시위 물결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반전평화 시국 선언대회' 등 각종 집회를 비롯해 인터넷을 통한 평화촉진 보내기 캠페인, 부시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에게 전장반대 메일 보내기

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역에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로 '보복전쟁 중단·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위한 범국민 대화'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고이즈미 정권이 아프간 보복 공격을 틈타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도로 시민집행행동단이 보낸 연대서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민주노동당 학생단체 '다함께' 회원 김진석군은 "겉으로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하는 미국의 행위는 위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전쟁에 참여해 중동 국가를 적으로 삼을 경우 석유수입과 관련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에 걸프전 수준으로 5억 달러를 지원하고 비전부병을 파병하는 반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서 천 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전쟁 지원금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에 허영구 민주노동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쟁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금 등 다른 부분의 지원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번 전쟁을 '마약과의 전쟁'에 비유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뜻을 밝



반전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이 피켓시위를 통해 보복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했다. 이와 관련해 불평등 소과개정국민행동 문정현 신부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명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모든 단계가 연대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가을 바람에 실려온 희귀식물 이야기

진돌쩌귀 · 용담꽃 · 꽃무릇 등 다양 ... 환경파괴로 개체수 감소해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꽃을 피우는 희귀식물은 진돌쩌귀,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땅귀개, 각시수련, 가시연꽃, 국화방망이, 흰꽃나도솔이 풀, 흰꽃물옥잠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식물들은 예전에는 개체수가 많았지만 점차 개발과 자연환경 파괴가 심해지면서 지금은 현저하게 줄어든 식물들이다.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땅귀개, 흰꽃나도솔이 풀 등은 나지막한 산골짜기에서 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 점차 없어져 가고, 각시수련, 가시연꽃, 흰꽃물옥잠 등은 늪지의 수생식물로 늪지를 도로 등으로 만들면서 사라지고, 국화방망이 등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없어지고 있다.

일명 초오(草烏), 서울투구꽃, 북한산바꽃으로 불리는 '진돌쩌귀(Aconitum seoulense)'는 처음 발견된 곳이 서울의 북한산으로서 우리 특산 식물 중 대단히 중요한 식물이다. 특히 이 식물은 한방약재로 유용하며 북한산 전역 숲 속에 많이 분포한다.

그러나 근래 서울의 인구가 많아지고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항상 많은 인과가 산을 오르는 까닭에 이제 북한산에서 진돌쩌귀를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비단 진돌쩌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물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밖에 희귀식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가을

꽃을 대표하는 꽃 중의 하나로 '용담꽃'이 있다. 용담꽃은 통꽃으로 꽃술이 통속 깊숙이 안쪽에 자리하여 느릅나무와 호박벌과 공생하지 않으면 자손을 퍼뜨리기가 어려운 꽃이다.

이 때문에 추울 때까지 피는 용담은 털이 많은 호박벌을 재워주고 꽃가루받이를 하여 어김없이 씨를 맺고 한해를 마감한다. 가을 9~11월 까지 피는 용담꽃은 꽃이 필 때면 풀잎도 붉은색으로 단풍이 든다.

또하나 가을에 많이 피어나는 수선화과의 '꽃무릇(Lycoris radiata)'은 일명 석산(石蒜), 붉은 상사화, 상사화라 불리기도 하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산사(山寺) 부근 숲 속에 많이 피는 꽃이다.

이들 무리는 몇 가지가 있고 백양꽃, 붉은상사화, 노랑상사화, 상사화(相思花) 등은 모두 꽃이 피는 시기가 늦은 여름에서 초가을 8~10월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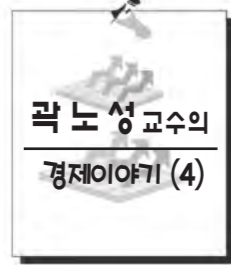
이 식물들은 같은 시기에 꽃이 피고 생활상도 모두 비슷하다. 상사화(想戀花)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서로를 생각한다'는 뜻인데 풀잎과 꽃이 서로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다.

상사화는 가을에 붉은 꽃이 갑자기 무리지어 피어나서 무리를 이루는데 꽃대와 꽃만 보이기 풀잎이 전혀 단 한 잎도 없다.

10월 하순께 꽃이 완전히 시든 후 땅속에서 새로운 풀잎이 돋아 나와 겨울을 지내고 봄을 넘기고 여름 7월 하순께면 어느 날 갑자기 풀잎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8월 하순께면 풀잎이 없는 땅속에서 갑자기 꽃대가 나와 꽃이 피기 때문에 꽃과 풀잎이 같이 있는 날이 없다. 꽃과 잎이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유래되었다.

길가의 노란색 작은 국화(甘菊)이 언덕을 노오란 색으로 물들이면 이제 가을이 멀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 소장



세계화... 반대논리와 현실

이번 10월 상해에서 열린 APEC 정상선언에 의하여 WTO 뉴라운드 출범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이해집단을 비롯한 반세계화 단체들의 시위 경험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세계화가 가져올 영향과 반세계화 운동단체의 주장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배의 새로운 변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세계화로 동질화된 생활양식과 가치가 전세계에 전파되어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말살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그 분야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첫째, 2차대전 후 경제개발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자유로운 수입과 수출로 70년대 이후 경이에 가까운 성장을 해왔다. 세계화가 선진국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분쟁을 규칙(rule)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화로부터의 성과는 세계가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세계화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 질 것이지만 각국의 문화는 오히려 그 독특성을 근거로 강화과정을 가질 수 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지적학적 상황, 기후와 자원 등에 근거, 사회구성원간의 오랜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관과 행동패턴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역이 자유화된다고 독특한 문화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교역의 자유화로 인한 이득을 문화 보존과 계승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독특한 문화가 체화된 상품과 용역을 관리체제에 의하여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단서가 따른다. 즉 생산성에 입각한 경제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문화는 자본이동과 투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가 세계화로 인해 쇠퇴와 몰락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올바른 예측이다. 이에 따라 그 분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경쟁을 전제로 하며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에는 생산물의 시장가치에 부가하여 사회적 가치를 결합적으로 생산하는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유화가 오히려 경제적 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와 같이 전일경관을 제공해 주며 국토보전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과 관세와 같은 국경조치를 자유화와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대하여는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국가 전체의 성장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평화분야 세계석학 요한 갈통교수 내일(30일) 문화관에서 특별 강연

사회과학대학(학장=장오현·경제학)은 평화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평화활동가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교수를 초청해 내일(30일) 오후 3시부터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문명의 충돌인가 구조적 폭력의 폭발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와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21세기 인류 사회의 과제에 대해 영어강연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며 원광대 이재봉(정치외교학) 교수가 통역한다.

교수동정

▲박정국(화학공학) =지난 28일부터 내일(30일)까지 YABEC Symposium 및 학회발표 위해 중국 상해 방문.

▲이석장(경주캠프 영문학)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불자 교수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

▲김주환(경주캠프 정보통계학) =지난 21일부터 내일(30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AAROD(아프리카-아시아지역 개발기구)주최 국제 세미나 참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학문해야 하는가

예리한 통찰력으로 명확한 극복방향 제시 독자적인 이론 수립과 비판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본교 홍윤기(철학) 교수 강연모습.

동서고금을 막론해 학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학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돼 왔다. 많은 학자들이 이 고전적인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답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내려진 바 없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 박사과정 2학기)는 지난 24일 '2001

대학원 학술문화제' 행사 중 하나로 본교 홍윤기(철학) 교수를 초청해 '한국사회에서 학문하기'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학문과 현실의 관계는 무엇이고 한국사회 속 자유로운 학문 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만경대 사건으로 구속됐던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평소 발언과 활동, 과거의 저작과 논문까지도 문제가 되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홍윤기 교수는 민족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학문의 자유에 한계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홍교수는 학자의 역할을 '선생'으로 규정하는 막스 베버의 견해를 인용, 이는 정치세력에 영향하는 '대중선동가'와 구별된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학자는 현실세력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현안의 극복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를 보고 학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앞으로 전개될 테러 유형을 예측한다. 즉, 끊임없이 조성되는 각종 문제상황에 대해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문의 자유가 분석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홍교수는 학자가 시대 문제에 비판적 지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제적 행동에 앞서 우리만의 이론적 토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은 언제나 국가 차원에서 규제의 대상이었다. 이에 학문은 항상 중립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있다. 아직 사회구성원들의 성숙한 비판의식이 뚜렷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학문은 사회가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꽃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소비문화 바로잡기



김 동 현
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불황이 심화되면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과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L-세대(Luxury-generation), 명품관광여행, 명품계 등 새로운 유행어가 양산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한도를 넘고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 온다. 대부분의 소비지출이 남학생의 경우는 술 값과 유희비, 여학생의 경우에는 옷과 화장품 등 자기를 치장하는 데에 쓰이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소비문화를 잘 드러내는 한 모습이다.

한때 대학사회에는 이념과 이상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취업난에 종압감을 느끼지도 않았기에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도 가능했다.

그러나 대학사회에서 이념과 이상에 대한 열정과 지적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외모 가꾸기와 명품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가 대학에 파고들어 이제 대학문화와 대중문화간의 차별성을 찾는 것은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물론 외모 가꾸기와 개성 추구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가 수강하는 과목의 교재나 양서를 구입하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유희비와 의류 구입비는 아까워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소비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굳이 명품을 찾는 이유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은 차별성과 희소성 때문이었지만, 몸에 두른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선 자신의 현재 몸값을 냉정하게 계산해보라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자기변화가 요구된다. 이 시대는 누구나 자신의 시장가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며, 자신의 몸값을 키우는 투자에 인색하면 생존할 수 없다. 자기 자신만의 개성 추구도 중요하지만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생산적인 소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식이다.

일부 기성세대의 소비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을 벗어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주체적인 대학생 소비문화가 대학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카메라 앵글 속 민족문화 향연

본질성·주체성 살려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영화 만들어야



사진:신지호

요즘 우리 영화계에서는 선적적 장면과 흥미위주의 볼거리를 앞세운 영화들에 관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묵묵히 '우리 것'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사람이 있다. '서편제', '춘향전'에 이어 조선시대 천재 화가 장승업의 삶을 그리는 영화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이 바로 그이다.

민족문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실정에서 임권택 감독이 생각하는 참된 민족문화와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보았다.

- 서구화 되어가는 영화계 세태 속에서 한국적인 영화만 고집하는 이유는.
= 최근 우리 영화가 흥행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작품성보다 흥행성을 앞세운 영화들은 세계시장에서 한계가 있다. 세계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영화를 만들려면 우리 나라의 문화적 개성을 영화 속에 녹여내야 한다.

'헐리우드 따라가기' 식으로 영화를 만들다보면 자칫 서구의 아류작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고 해도 소재를 직접 경험하고 느낀 사람보다 잘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사람만이 한국적인 소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민족혼을 담아낼 수 있다. 내 영화를 통해 외면받던 민족문화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나아가 그 관심이 우리 문화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 내가 영화감독으로서 추구하는 바이자 한국적 영화에 주력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우리 영화계의 젊은 감독들도 관객의 기호 맞추기에 연연하기보다 우리의 정서가 배인, 우리 삶이 묻어나는 영화를 만들길 기대한다.

- 민족문화 계승 부분은 북한이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은가.
= 체제상의 차이로 민족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비해 민족문화를 잘 보존해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영화를 보고나서 다소 고여있는 문화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민족문화의 가치를 알고 보존하는 점은 본받을만 하다.

- 이번 영화에서는 어떠한 민족문화를 표현할 것인지.
= '취화선'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그림, 한국화의 기본적인 지향점을 알릴 것이다. 더불어 작가로서 자기의 작품세계에서 거두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예술가 장승업의 작품세계를 조명해 그의 장인정신을 보여주고 싶다.

- 민족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 자기민족의 본질을 놓치고 세계화의 흐름에만 편승하려 한다면 우리 문화는 결국 서구문화에 흡수되고 만다.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살리려면 문화의 각 분야에서 우리만의 빛깔을 지켜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문화를 알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속에서 보편성을 얻어낸 우리 문화만이 진정한 민족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주한미군 박람회

오만한 특권? 상처입은 주권!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량이 버섯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특권, 수도나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 단 9명을 위한 인천의 16만평 주둔공간. 이렇게 특별한 삶(?)을 누리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 17일부터 서울 한복판에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유린당한 우리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만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주한미군 박람회'가 바로 그것이다. 종로타워 앞 광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주권을 침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한미군 불감증'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 주한미군 문

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람회 전시작품은 소파(SOFA)협정 역사와 주한미군 주둔지역 피해사례, 미군이 방류한 오폐수 샘플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매항리에 떨어진 폭격 잔해물을 이용해 미국의

오만한 모습을 사람모형으로 형상화한 임상옥 씨의 조형물 앞에서는 시민들의 발길이 오래 머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전을 단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친다면 '주한미군 불감증'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에 의해 침해된 우리 주권을 보고 느끼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 권리를 찾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북한문화 대축제

통일문화 우리가 만든다

'녀성이 꽃이라네...' 생소한 북한가요가 들려오는 곳은 명지대 본관 앞뜰. 지난 12, 13일 명지대는 북한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이 담긴 사진 전시와 북한음식 판매, 토론회, 북한인기영화 상영 등으로 활기 찼다.

당면대신 찹쌀을 넣어 만들었다는 북한식 순대를 팔던 한 북한 이탈주민 아주머니도 순대를 사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맙다고 답하며 즐거워하는 표정이다.

한국 북한학과 학생회 연합(회장=정대용·명지대 북한3)이 주최한 '제1회 북한문화 대축제'는 본교를 비롯한 명지대, 고려대 등 8개 대학의 북한학과 학생회가 모여 기획했다. 이 행사를 준비하

고 진행한 본교 북한학과 학생회장 윤천규(북한3) 군은 "우리가 북한문화를 먼저 알고, 사람들이 북한문화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함께 만들어 가는 북한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공의 북한학과 학생들이 모여 북한문화를 알리려 노력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학문과 실천을 이어가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계속되어 통일문화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잡은소식

리어앙

서울캠 영어영문학과 소모임 영어연극반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리어앙'을 공연한다.

학생들이 직접 연기와 연출을 맡아 그동안 영어연극을 고집하던 형식에서 탈피, 번역작을 새롭게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을 통해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4시·7시 (목·금)/2시·5시(토). 9주년 기념문화관 지하 1층 예술극장에서. 문의 2260-8708

무역누리제

서울캠 무역학과가 열일곱 번째 '무역 누리제'를 연다. 이번 누리제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부터 '미국테러'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을 표현한 마당극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11월9일 체육대회 민해광장, 대운동장에서 △11월9일 4시30분 마당극 불상 앞에서 △11월9일 4시 학술심포지엄 90주년 기념문화관 1층 세미나실에서 △11월10일 5시30분 무역인의 밤 90주년 기념문화관 그림식당에서.

문의 011-9091-6249(류재관)

국악과 졸업발표회

경주캠 국악과가 '제4회 졸업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1, 2부로 나누어 판소리·창작 연주를 중심으로 선보이며, 국악과 졸업생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다. 한편, 무용 발표회는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오는 1일 오후 7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후 4시30분·6시. 원효관 소강당 II에서. 문의 054)770-2509

소리몸짓 정기공연

경주캠 의대 연극동아리 소리몸짓이 소설 '가시고기'를 무대에 올린다.

연극 '어머니'와 소설 '아버지'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된 이번 공연은 주인공 다음이의 병원 생활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30, 31일, 오후 6시30분·7시. 원효관 소강당 I에서. 문의 018-511-0533(임지현)

매체비평

뮤직비디오 편

또 한번 사랑은 가고

“천편일률적 세태에 ‘발상의 전환’ 새바람이 분다”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를 편입·제작한 이기찬의 '또 한번 사랑은 가고'.

한국 뮤직비디오는 몇 백만원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노래방 수준의 뮤직비디오에서 몇 억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장면 영화를 압축한 듯한 영화적인 뮤직

비디오까지, 얼마 안 되는 역사 속에서 수십 배 늘어난 제작비만큼이나 급격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 뮤직비디오의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내러티브를 지닌 드라마적 뮤직비디오와 현란한 가수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뮤직비디오가 그것인데, 엄청난 제작비를 투여하여 송해교, 이영애, 이미연 등의 스타들을 기용한 해외 로케이션으로 멋지게 포장한 뮤직비디오와 현란한 화면변화와 조명으로 가수의 댄스 위주로 이루어진 뮤직비디오가 가요 베스트 상위권을 이루는 뮤직비디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외국의 다양한 뮤직비디오와 비교해서, 몇몇 잘 나가는 소수의 뮤직비디오 감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슷한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최근 한국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한계가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최근 이기찬의 5집 앨범에 수록된 '또 한번 사랑은 가고'의 뮤직비디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뮤직비디오가 영화나 TV 드라마 화면을 주로 사용하던 것과 달리 이 뮤직비디오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연극의 장면 장면을 편집해 제작했다. 기존의 뮤직비디오가 CF나 영화적인 화면장치로 관객의 시선을 끌었던 것에 반해서, 이기찬의 뮤직비디오는 그 오프닝에서 동화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따뜻한 동화적 이미지의 연극을 특별한 화면 처리 없이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은 못하지만 몸짓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난장이 반달이의 백설공주를 향한 순

수한 사랑이야기. 끝내 공주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전하지 못한 반달이. 슬픈 하나로, 흔들리는 눈망울로 어른들의 눈물샘까지 자극했던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우리가 이 뮤직비디오를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그 고전적인 백설공주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연극 자체가 주는 발상의 전환이다. 고전적인 백설공주와 왕자라는 귀족계급의 사랑이야기를 난장이의 공주에 대한 희생적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한 연극자체의 감동이다. 그 감동은 제라르 드베이유의 '시라노'나 찰리 채플린의 '시터라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안타까운 희생적 사랑이야기의 감동과 다를 아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뮤직비디오가

살아있는 연극을 감각 있는 영상으로 승화시켜 따뜻한 감성이 배어 나오도록 음악과 화면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하여 실제 연극에서의 감동 이상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식상한 TV 미니 시리즈 풍의 사랑이야기가 아닌, 아름다운 반달이의 백설공주에 대한 사랑이야기를 통해 천박한 사랑이야기로 빠질 수 있는 대중가요에서의 사랑이라는 테마를 좀더 순수한 사랑이야기로 승화시킨 이 뮤직비디오가 요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역시 기존의 전형적인 뮤직비디오의 껍질을 과감하고 버리고, 좀더 진지하게 진짜 사랑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 승 통 영화·연출 칼럼니스트

대중예술문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도도한 예술의 즐거운 의도

올 겨울, 공연예술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다. 그 이유는 이번 뮤지컬이 100여억 원이라는 순수 공연 사상 최대의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공연예술의 총아로 떠오른 뮤지컬이 대표하는 우리 공연시장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이번 무대에서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은 고급예술의 대명사인 오페라에서 출발한 장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흔히 어렵고 따분하게 받아들여지는 오페라 형식에서 벗어나 배우의 노래와 춤 그리고 스펙터클한 무대와 화려한 볼거리로 무장한 뮤지컬은 이미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그 대중성과 상업성을 충분히 검증 받은 바 있다.

관객을 찾아가다

최근 뮤지컬뿐만 아니라 고급예술로 분류되는 다양한 장르의 순수 공연들이 신선한 아이디어와 발 빠른 기획으로 '관객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다. 클래식에도 대중음악 요소를 접목한 크로스오버 콘서트나 해설을 곁들인 청소년 음악회가 관객들에게 친숙한 공연 형태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다. 오페라에서는 낯선 서구 모티프가 우리 시대 이야기로 변모되는가 하면 해설이 곁들여지거나 아예 어린 관객들

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 제작되기도 한다. 또한 어둡고 답답한 극장을 벗어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무료로 공연되는 발레나 무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의 저변에는 '공연예술이 더 이상 순수와 극장이라는 유·무형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연예술계 전반의 위기감이 깔려있다. 매스 미디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매체의 힘을 자랑하는 대중문화와의 경쟁에서 순수예술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관객과의 거리 좁히기는 순수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연물 재생산을 위한 나름대로 틈새시장을 찾아내며, 장기적으로는 관객의 지지를 넓히려는 마케팅 전략 차원의 접근인 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업적 접근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공연예술에 대한 문화산업 차원의 접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인 것만은 확실하다. 순수예술의 현주소에 대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과 고민은 예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문화적 저변과 향수층이 비교적 두터운 서구 문화 선진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공연예술에 대한 관객의 수준 높은 안목과 올바른 선택이다. 우수한 공연을 만드는 것은 공연단체와 극장의 몫일 뿐만 아니라 관객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순수 공연예술에 대한 관객의 건강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공연계를 살찌우고 예술자와 기획자에게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 한층 성숙한 공연문화를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바로 이틀처럼

6, 7년 전쯤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극장에 간 일이 있다. 그 곳에서 한국인 소프라노 권혜선이 출연하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렵사리 구한 입장권에 적힌 내 좌석은 다름 아닌 가슴 높이에 세워진 길다란 바에 기대서서 관람하는 입석이었다. 그것도 6층 건물 맨 구석이었다. 내 뒤에는 역시 돈을 주고 사는 좌석이지만 무대는 보이지도 않는 간이의자에 앉아 흐릿한 손전등에 의지해 악보를 보며 오페라를 즐기는 노부부가 막이 내릴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멋진 상투리에, 화려한 객석과 웅장한 무대보다도 내 기억에 오래 남아 아직도 경이감마저 느끼게 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애정을 나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박 남 진

월간 '예술의 전당' 편집장



캠퍼스 공연장, 열려라 참깨!

대학차원에서 학생·지역주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녹색지대와 KBS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난 괜찮아'가 오프닝으로 흘러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아베마리아'가 잔잔히 들려온다. 박수와 탄성소리로 리듬을 맞추던 관객들은 어느새 음악과 하나로 어우러진다. 이것은 지난 28일 방영된 KBS ITV '열린 음악회'의 공연 모습이다. '열린 음악회'는 일반인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선사한다는 기획의도 아래, 'KBS 홀'을 비롯해 각 도시와 대학 콘서트장을 돌아다니며 관객을 찾아다니는 공연무대로 유명하다. 매주 매진행진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열린 음악회. 이것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그치지 않고, 일반시민들을 공연장으로 이끌어 문화예술을 경험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문화적 욕구에 목말라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그들이 마음 편히 찾을만한 공연장이나 전시회 등의 문화공간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대학이 '예술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본교의 '90주년 기념관'이나 연세대의 '100주년 기념관', 경희대의 '크라운관', 성균관대의 '600주년 기념관' 등 각 대학마다 그 대학을 대표할만한 공연시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캠퍼스 공연장은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대형 공연장과 다름없는 최첨단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전문 관리사까지 겸비하고 있어 제대로 활용한다면 시민과 문화에 있는 훌륭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클래식이나 국악과 같은 예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곳도 다름 아닌 대학이다. 그렇기에 캠퍼스 공연장은 이러한 학생들이 재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캠퍼스 공연장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다 양질의 학내공연을 위해 쓰여야 할 캠퍼스 공연장이 학교의 상징물뿐만, 혹은 대관료를 받아 학외 행사를 유치하는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존재해서는 안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문화 시스템을 대학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서초구청이 지난 94년부터 매주 진행되는 '금요음악회'와 같이 정기적인 무료공연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캠퍼스 공연장은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래야만이 대학이 '열린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메아리

대의명분

▲“너희 박씨가 왕이 된 이후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사정이 더욱 힘들어졌다. 나 또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박씨왕을 버린 것이다”
어전히 안방의 이복을 집중시키고 있는 태조 왕건에서 백제군에게 길을 열어주고 신라를 배신한 대신 유열의 주장은 이렇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정권장악의 야심을 품은 그의 속셈을 모를 이가 있던 발인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운방골 여학생휴게실 개선 문제'는 자치권 확보를 내세우는 총여학생회의 대의명분 아래 7천9백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지역 저편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제껏 자치권 확보에 관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총여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은 이를 통해 공간 교환을 무마하고 총여 사무실을 지키고자 하는 속셈이 있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총여가 공간교환에 응할 경우 일부 비정규 조직들의 모임장소로 사용되던 '민중도서관'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이를 꺼려하는 듯 하다. 그러나 공간 교환 후 도서관공간의 존속을 약속하는 여학생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도서관 건설로 인해 좁아지는 자신들의 공간을 우려한다는 의혹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계속돼온 선전전역시 '여학생휴게실개선사업' 유치의 대안을 제

시한 적극적 활동이라기보다 비 지지세력에 대한 비방과 총여의 입장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라를 배신한 유열은 결국 자신이 추대한 김제 왕에 의해 처형되고 만다. 결국 대의도 그리고 그를 빙자한 사리사욕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총여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대로 '여학생휴게실 개선안'이 백지화된다면 비록 총여 사무실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주장

하는 자치권 확보는 고사하고 차려준 밥상도 차버리는 무능한 조직으로 학생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총여학생회는 신라의 유열과 같이 자신이 판 환경에 걸려 들어가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자중의 미덕을 배우고 여학생의 대표자로서 학생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미혜 생활부장
kai@mail.dongguk.ac.kr

소나기

진정한 초등교육의 길 =교대학점제(?)



△교과과정과 사대교육과정이 같을 수 있나? 수의사에게 1년 교육시켜 의사 만드는 거랑 일맥상통.

△교대를 더 늘려야지! 중등교육으로 임용은 하되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 심화할 것!

△교대생들 단체 행동 한다고 다가 아니다! 이 상태라면 되려 교대생들 목격지.

△제대로 된 대안이라도 내놓고서 해야 하는 거 아냐?

△사대생들한테 초등 교원 자질 갖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시길...

△말도 많고 시끄러운 초등 교육을 사이비화 시켜 아예 초등학교를 없애는 건 어떨지는?

△교대생들 억울하지? 4년이나 초등교육전문공부 했는데...

△도대체 뭐가 참교육인지...교육부부터 알고 있는지 알고 싶사와요.

△4년 공부+1년? 차라리 대학원을 가겠다. 학력이라도 높이지.

△교대 학점제 너무 한다. 바꿔 바꿔라~

△생명을 다루는 의예과 학점제, 사람들 다루는 교대 학점제(?)

△초중교사는 아무나 하나~

△그 방법 뿐이야? 다시 생각해봐.

△땀질인 연속, 정부는 용접공(?)

△교대는 샘플인가요?

△높은 점수로 교대까지 간 내 친구는 어찌조?

△왜 자꾸 이러십니까~ 무슨 억울함정도로~

△기다려 줘~ 나도 초등교사 할래!

△교육부가 기가 막혀~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10월 15일자와 22일자는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제1329호)은 10월 29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upress
나우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돈육꽃고추찌개(1300) 닭고치구이(1500) 너비아니구이백반(1500)
화	꼬치우동백반(1500) 제육덮밥(1500) 스키야기(1500)
수	순두부찌개(1300) 탕수육(1500) 닭갈비볶음(1500)
목	사골곰탕(1500) 후랑크볶음밥(1300) 불고기덮밥(1500)
금	감자탕(1500) 오징어까스(1500) 생야채비빔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버섯찌개(1500) 짜장밥(1300) 나물비빔밥(1300) 우렁콩짜장(3000)
화	사골곰탕(1500) 김치볶음밥(1300) 비빔만두(1300) 육개장(3000)
수	콩나물국밥(1500) 불고기덮밥(1500) 고등어김치조림(1500) 헬숙어찌개(3000)
목	돈김비빔백반(1500) 고구마별미밥(1300) 이채튀김갈비(1300) 영계백숙(3500)
금	닭가슴살(1500) 해물덮밥(1500) 생선까스(1500) 따로국밥(3000)

(단위:원)

영화 '조폭마누라'를 보고

배우의 변신과 매력 묻어낸 유쾌한 영화

나는 신은경이란 배우를 참 좋아한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눈빛과 매 출연작마다 다른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인형처럼 예쁘고 가녀린 여느 여자 배우들과는 확실히 차별화 되기 때문이다.

요즘 최고의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조폭 마누라', 이 영화가 개봉한 같은 시기에 '불날은 간다'라는 멜로 영화도 개봉되었다. "웃고 즐기는 영화는 보고 낡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기에 극장에 가서도 전혀 망설임 없이 '불날은 간다'를 보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난 '조폭 마누라'를 보고 한바탕 크게 웃고 나왔다.

물론 내 생각대로 낯은 건 없었다. 그저 한 시간이 넘는 그동안 정말 시원하고 거리낌 없이 웃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이로도 조폭 마누라의 매력은 충분했고 다

른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웃으며 "참 재미있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영화에서 신은경은 또 한번 변신을 거듭했다. 얼마 전 왁스의 뮤직비디오에선 슬픈 사랑과 이별을 겪은 성숙한 여인으로 사랑 받더니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엔 조폭 마누라 은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극과 극을 달리지만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그녀의 변신이 고스란히 담겨진 영화 '조폭 마누라'. 스토리 구성에 있어 상투적인 면도 없진 않았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면이 아닌 영화 그 자체를 보고 판단했을 때, 트집잡을 수 없는 아니 트집잡기 싫은 영화이다. 언제고 우울할 때면 찾을 수 있는 유쾌한 영화로 남게 되리라 생각된다.

최현정 (문과대1)



독자 사진

그들의 미래는

◀ 미국의 아포간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 그들의 만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남현정 (서울캠 사진동아리 동그리미)

비정규 동아리 위한 학교측 배려 있어야

대학 생활 중 동아리 활동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업 외 관심 분야에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 동아리의 경우 그런 것들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항상 존재의 위기를 겪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비정규 동아리의 회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생긴지 3년된 우리 동아리는 현재 신규 동아리에 등록된 상태다. 정규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동아리방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는 음악 동아리로 악기를 보관하고 연주할 만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우리의 입장만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신규 동아리로서 그런 문제 정도는 당연히 감안해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규 동아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같은 신생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문화가 좀더 발전하고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어 시작하려는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임지은 (자연대 수교3)

기본예절 소중히 여기자

얼마전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한 김근태 의원과 이부영 의원의 '현 남북관계의 실상과 통일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문화관에서 있었다.

시작 전에 형식적으로 그치고 딱딱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는 예상과는 달리 두 의원의 주제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허심탄회하게 두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바탕을 두고 솔직히 답변해주어서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강연은 전체적으로 산만한 분위기였다. 강연 도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들어와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발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사람, 강연도중에 나가는 사람, 강연 중에 휴대폰을 꺼놓지는 못할지언정 진동으로조차 해놓지 않아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벨소리 등으로 강연 흐름은 깨어지기 일쑤였다.

흔히들 지성인이라고 대표되는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예절조차 무시하는 현장을 접한 것 같아 강연이 끝나고 돌아서는 내 기분이 무척 씁쓸했다.

김형중 (사과대1)

지성인 올바른 독서습관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지만 독서하는 것만큼 좋은 습관은 없다고 본다. 특히 대학생에게 있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나 또한 의학관에 많은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요즘에는 학내 중앙 도서관을 드나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학생들은 학과 공부 등의 이유를 들어 독서를 멀리 하는 형편이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을 두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독서를 습관화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책을 선별하는 기준을 기르는 것과 책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다. 여러 매체에서 소개돼 알고 있었지만 대학생들의 도서관 도서 대출 1위 장르는 무협 소설이라 한다. 물론 무협소설이 전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문의 정당한 대학의 도서관 대출 도서 1위가 무협소설이라는 점은 재고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또 다음 학생들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책에 낙서를 해놓거나 훼손시키는 일은 대학생으로서의 참모습이 아닐 것이다. 대학생으로서의 의식을 지니며 독서를 생활화하는 모습을 우리 학교 학생들로부터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오선민 (의과대 간호3)

■ 지난해 동대신문을 읽고 ■

산만한 내용 전개 아쉬워

최근 본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토론의 화근인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 관련한 기사는 학생들의 관심과 현재 대학이 당면한 문제의식을 분출해내는 면에서 그 시기가 적절하고 타당할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다양하고 면밀한 평가에 관련한 자료와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소 산만한 내용 전개로 기사 일부에 의문점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이 갖춰야 할 부분은 자체 평가나 백서 제작 등의 노력만으로 한정되어져 이미 그 대안에서 학내 전반 문제의식에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의 역할이 제외된 채 다뤄지지 않았나 싶다. 대학 내에서 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끊임 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권영은 (문과대 국문3)



(제1329호 10월 8일자)

동양사상 깨닫는 계기돼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른 환경과 사회 문제의 등장으로 동양사상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요즘은 교육철학이나 자연과학분야에서도 동양사상과 결부되어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지난호 학술면의 동양사상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해석한 후에 그 대안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이제까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 방안 없이 동양사상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재 고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시수정 (인문대 국사3)

대문

심재희 (예술대 문창1)

대문만 열어놓으면 이집 저집 귀뚜라미가 우리집 경둥이가 집 나가던 날 시골 할매네 해경안도 집을 나갔다. 달빛을 거울삼아 물 글개 찍어 바르고는 착 달라붙은 검은머리에 꽃핀 하나 조심스럽게 밟아도면 들리는 밤나머 목신 바구기 소리 따라 슬그머니 나갔다.

검둥이 볼록해진 배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던 날에도 할매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정대근 (자연대1)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지났지만 재용·홍규 생일 축하해!
-대장님

△33대 총학생회 끝까지 수고~^^; -동국인

△경영학과 19913305 "쭈꾸미"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빈 라벤 매니아

△10월 22일 식공과 유엔아 양! 생일 축하!! -S·B·R 노명대표 엄 CP

수고하셨습니다

△YWAM 여러분!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하셨어용. -동희

△수소형, 주영이형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꾸벅! -38기 YH

△MBC 일일드라마 촬영팀 수고했어요. 소유진 양도 수고!

열심히합니다

△연유아, 서양의교사 공부 열심히해서 에이블 맞아~ -명이

△39기! 얼마 남지 않았다. -경·행

△17번째 무역 누리제 모두가 맘 풀린만큼 모두가 행복하게 끝나길 바랍니다.

-제 33대 선봉 무역학과 학생회 무역사랑 △'경영인의 밤'...이번에 고생한 01학년 집행부 후배들, 넘 이빠요, 수고했어 애들아.

△S.B.R 사람들! 남은 시험 모두 Super A+ -살바

그리고...

△중환아! 사랑해.

△국교과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달, 저처럼 탄 짓 하지 말구 열심히 하세요~ -국교과 껌떡이

△승재야! 힘내라! 설 꽃 못보면 어쩌나. △모두들 '도 닦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은방글

축하합니다

△화랑선무인들 특히 14기 3명(수진, 뽕임, 가영) 졸업을 진짜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랑인

△간호학과 '00 미영이 누나~ 생일 축하해!!

△11월 12일은 경영학과 김동민&이경민의 600일입니다. 마니 추가해 주세요~

△10. 27(토) 국사학과 정소정 생일 축하해! -동거인

△자운수수진 10월 30일 100일.

△정은아 Happy Birthday! -은선&진희 평

수고하셨습니다

△천부인 부인네들~ 시험친다구 다들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제육덮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스페니쉬족집(2000) 갈비탕(1800)
화	햄이채볶음밥(1600) 불고기덮밥(1700) 차킨가스(1800) 갈비탕(1800)
수	카레라이스(1500) 짜장덮밥(1700) 참치회덮밥(2000) 육개장(1800)
목	돈가스(1500) 해물볶음밥(1700) 잡채밥(1800) 육개장(1800)
금	미파두부덮밥(1500) 오징어숙회비빔밥(1600) 불닭덮밥(2000) 설렁탕(1800)

(단위:원)

경주캠 원효관 교직원 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롤링탕·김치수제비(2500) 쇠고기덮밥(3500)
화	참치찌개·연포탕(2500) 양송이김치덮밥(3500)
수	계린탕·돈비지탕(2500) 갈비탕(3500)
목	멸우김치원장국·쇠고기온반(2500) 김밥+칼국수(2500)
금	굴두부탕·복어국(2500) 비빔밥(2500)

(단위:원)